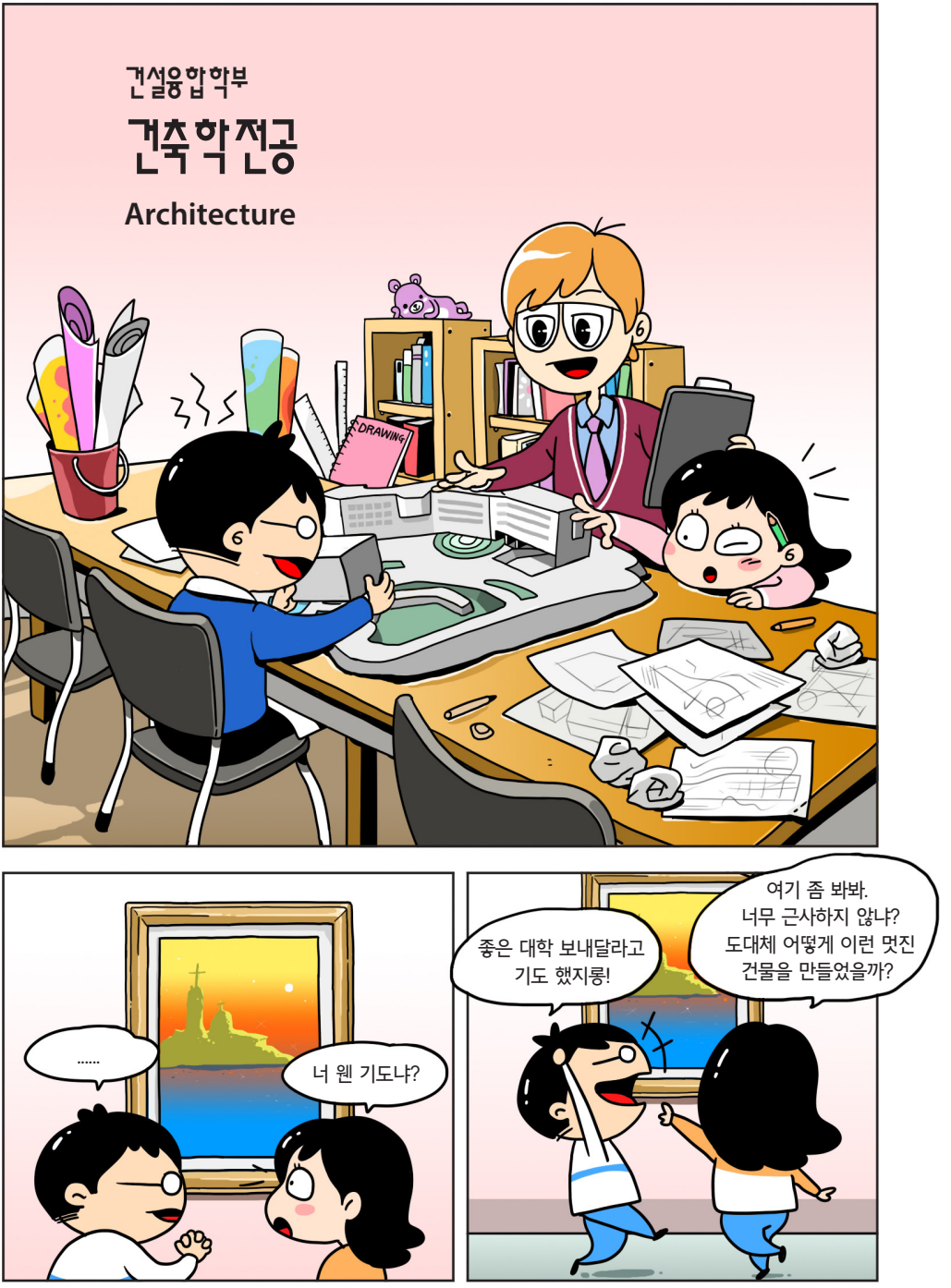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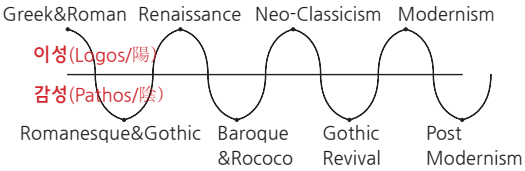

건설융합학부
건축학전공
Architecture
DRAWING
.....
너 웬 기도냐?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 했지롱!
여기 좀 봐봐. 너무 근사하지 않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멋진 건물을 만들었을까?

.... 그건말야. 건물이 아니라 건축이라고 해.
발
쑥
둘의 개념이 헷갈리지? 단순히 설계해서 만드는 것을 건물이라 하고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걸 건축이라고 표현해.
아~그럼 예술품에 가까운 걸 건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똑똑하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던 사진들은 건축이구나!!
반가워! 난 건축학전공 학생 김제도야! 건축에 대해 궁금하면 날 따라 와!
덧붙이자면, 사람이 들어가는 데 충분한 넓이를 갖춘 것은 모두 건물이지만, 건축이라는 말은 미적 감동을 목표로 설계된 건물에만 사용한다. 라는 뜻이야.
독일의 N.페프스너: 차고는 '건물'이고 대성당은 '건축'이다.
오, 제법 어려운 질문을 하네. 건축의 본질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과 예술적인 감흥을 주는 창조성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선배님, 건축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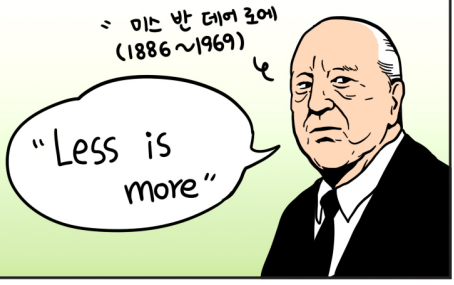
[Rome] Colosseum

[Gothic] NotreDame

건축의 역사는 이성적인 것 다음에 감성적인 것, 고전적인 것 다음에 바로크적인 것, 합리적인 것 다음에는 관능적인 것 같은 이원성이 반복하고 회귀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진화해 왔다.



대표적 모더니즘 건축가인 미스 반 데 로에는 "Less is more"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많은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그의 주장처럼 기능주의에 입각해서 최대한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을 했다.



모더니즘 이후의 현대 건축은 지역성과 전통적 특색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래서 보다 자유롭고 개성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졌다.

[Modernism] Villa Savoye

[Modernism] Falling water

이후에 등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는
더 재미있어져!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획일화 되어 버린 모더니즘 건축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새로운 형태를
구성하고자 했다고 나와 있네요.
오~

80년대 이후부터 유행하고
있는 해체주의 건축의 특징은
정리된 형태나 구조를 해체하여
분열, 진위, 비틀림 등을
거쳐 다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

이 건축물은
뭔가 혼란스러워
보여요.
[Deconstruction]
Guggenheim Bilbao Museum

맞아, 뭔가 혼란스럽고, 파괴적이지? 외부와 내부와의
연계성도, 명확한 선도 없어. 그러나 해체주의 건축은
모든 요소들 간의 관계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융통성 있는 개념을 담고 있어.
그렇군~

저런 건축물은 구경 가고 싶어요. 내부도 엄청 궁금해요!
저런 곳에서살면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창의성 쑥쑥!!
응, 정말 재밌지? 건축은 질서와 혼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간대. 이를 통해 현재 · 미래 건축의 경향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이런 걸 회귀하는 주기성이라 하는군!
자, 이제 대망의 부산대 건축학과에 대해 알아보자구!
부산대학교 건축학전공에서는 건축설계와 관련된 사회나 문화 이슈들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설계 이외에도 건축디자인을 위한 건축이론과 여러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건축 디자인이 재미있을 것 같아. 내 조형의지를 듬뿍 담아 나의 영혼을 디자인 하는 거지!
뒤틀리고 파괴적인 걸?
건축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해 왔어. 개인의 삶의 공간, 역사와 문화적 증거가 되므로 인문학적 바탕이 필요하지. 따라서, 건축은 하나의 시대정신을 나타내는 대상이 되지.
부산대학교 건축학전공에서는 동·서양 건축의 역사와 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복합적 의미와 가치를 탐구한다.

산업혁명 이후 기계적인 수단에 의한 환경조절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환경조절을 위한 토속건축의 형태는 사라지고, 건축의 형태가 보다 자유로워졌다. 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떠오르면서 오염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생태건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환경을 살리는 건축이 필요해~~
우리 전공에서는 여태 다루어 왔던 건물에너지, 거주자 쾌적성 및 건강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지.
역시, 환경이 중요해~
또 우리는 이론적인 연구 말고도 여러가지 실습도 할 수 있단다!
모형제작부터 디지털 출력까지?
KAAB
또 그 외에도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와 함께 향후 졸업생들의 교육성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놓았다.

2009년 이후부터 매년 부산대학교, 중국의 동제 대학, 일본의 오이타 대학, 큐슈대학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건축도시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안목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우린 매년 캐나다우드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에 참가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보편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타문화와 타 사회에 개방적이며 윤리적인 세계시민

지역의 전통, 생태, 문화, 삶에 기반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책임감 있는 지식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창조적 설계 능력을 갖춘 유능한 전문가

학사 · 인증 및 진로 정보 프로그램
-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
-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인턴쉽 프로그램
- 인턴쉽 및 현장실습

국내외 답사 프로그램
- 전통건축답사
- 시공현장답사
- 국내 도시 · 건축답사
- 해외 도시 · 건축 답사

각종 워크숍 참여
- 교내건축디자인워크숍
- 동아시아건축도시워크숍
-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학생워크숍
- 중국 동제대학 국제건축 디자인워크숍
- 경골목구조워크숍

전시 및 특강 프로그램
- 졸업작품전
- 졸업작품전 특강
- 특강 및 크리틱

학생 자치 활동
- 건축드로잉전
- 축제 파빌리온 제작설치

동아리 · 사회봉사 · 기타
- 신입생을 위한 예비대학
- 학생상담 및 진로지도

졸업작품전은 학외에서 공개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국내외 석학과 건축가를 초빙해 건축세미나를 개최하고, 특히 1학년 '건축개론' 과목에는 해마다 15명의 건축전문가를 초대해 건축가로서의 발돋움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다.

그리고 취업, 진로도 다양해!
시공, 공무, 주택, 개발, 연구 등 건설회사 및
여러 연구기관과 그 외 도시계획 강의분야 등
다양하게 일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설계한 집이
만들어 진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정말
배워보고 싶어!
그리고...
난 너의
속내를
다 알고있지...
동아리에 들어서
예쁜 여자친구도
만들고...
자!
별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아이디어
스케치는 건축학도의
기본소양 이니까.
와~
건축학전공은 사회전체의 패러다임 안에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책임지도자를 양성하는 학문이야.
그리고 주거란 인간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요소지.
그 요소를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을
함께 해 보지 않을래? 분명 멋질거야!